



준비와 목탁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직지사 영어캠프 '귀한 시작'

6월 15일, 김천 직지사 스님들이 서울 인사동을 찾았다. 스님들은 템플스테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전국 사찰에서 시행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이제는 더 이상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다. 더군다나 직지사는 어린이·청소년·직장인 템플스테이 선두 주자로 탄탄한 기반을 닦은 도량이다. 그런 직지사 스님들이 왜 상경했을까.

마음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이 사업 막바지에 발목을 잡았고 결국 독립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직지사 스님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음에도 어린이 포교의 원력 하나로 영어캠프형 템플스테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파주 영어마을조차 재정적으로 존폐기로에 직면했을 정도로 위급부담이 큰 사업이다. 때문에 성공한다면 직지사는 물론 불교계 전체에 큰 기쁨이다.

직지사의 영어캠프형 템플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차별전략이 필요하다. 불교적인 내용을 최대한 줄여 거부감 없이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불교적 내용을 변형시켜 새로운 타이틀로 접근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첫 시작부터 수익창출에 대한 생각은 차후로 미루고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은 분명하다.

총무국장 장병 스님은 "지역 학생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간접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예배와 발우공양 등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체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직지사는 행사교육원과 직지사 연수원을 갖춘 교육도량이다. 그동안 인쇄 부사에 집중하던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 어린이 포교에 원력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 첫 영어캠프인지라 원어인 교사, 프로그램, 체험비 등 행사준비에 보통 애를 먹은 눈치가 아니었다.

사실 직지사는 김천시와 영어 캠프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이 사업 막바지에 발목을 잡았고 결국 독립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직지사 스님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음에도 어린이 포교의 원력 하나로 영어캠프형 템플스테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생생한 한국 느껴요”

조계종, '미주동포학생 한국문화체험' 개최

재미교포 2~3세들이 불교로 모국의 전통을 체험하는 장이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6월 26일~7월 2일 '미주동포학생 한국문화체험' 첫 번째 마당을 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공동주최하고 뉴욕 사원연합회(회장 원영)와 미동부 불교신도회(회장 김정광)가 후원하는 이번 '미주동포학생 한국문화체험'은 원각사, 불광사 등 뉴욕 지역 8개 사찰, 불자 학생 2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체험은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체험을 비롯해 문화유적 답사, 산업현장탐방 등이 진행돼 한국문화를 접하지 못한 교포 자녀들에게 고국의 전통과 발전상을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또래 한국 청소년 불자와의 만남도 진행돼 양국 문화·인적교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 일정으로는 26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28일 안동하회마을 △29일 석굴암 및 불국사, 통도사 참배, 현대자동차 견학 △30일 KBS 견학 및 토론회 △7월 1일 박물관 견학 및 조계종립 동대부고 학생과의 만남 △2일 명원다례 전수 및 다도 체험, 충무원 방문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고령인 자녀 22명을 초청 '제1회 고려인 한국문화체험'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미주지역 교포 자녀 초청 행사를 통해 한인교포사회에 포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부 국제팀은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정신과 전통을 전세계 교포들에게 심어주고 양국 교민 연대 강화로 한국불교 세계화 또한 이끌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미국 지역 한국불교 사찰은 100여개에 달하며, 현재 뉴욕 및 미 동부지역에는 승사 스님이 72년 설립한 프로비던스 센터를 비롯해 뉴욕 원각사, 불광사 보스턴 문수사, 서광사 등 40여 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2)2011-1833

노덕현 기자

“수도·교화승 역할분담 현실화해야”

태고종 첫 정책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수도승(독신)과 교화승(결혼)의 역할분담을 현실화해 미래지향적인 새 불교운동의 역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고종이 처음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고종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도산)는 6월 19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연세대 철학과 신규택 교수는 “태고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란 발제를 통해 수도승과 교화승의 양 체계를 주장하는 태고종은 △종현상의 ‘대승계’에 대한 연구와 계목 확립 △비구교단과 차별화된 ‘대승보살운동’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입장 표명 △보다 많은 공찰의 확보 △동방불교대학 등 교육기관 활성화 △일정 교육을 통한 사회인사의 교직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태고종은 태고보우 선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고 선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원장 도산 스님의 인사말과 국회 정각회 부회장 강창일 의원의 기조연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로 시작된 토론회는 윤경 스님의 ‘근현대불교사과 태고종의 탄생’ 발제와 김경진 교수(진각대 교수), 법담 스님(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이학종 대표(미디어부), 능해 스님(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의 새로운 위상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종단 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와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사찰 주지회의, 소인자별 워크숍, 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무행정 체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19일 열린 태고종의 제1회 정책토론회에서 정책기획위원장 도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신규택 교수. 사진=박재완 기자

‘성시화’ 대처할 新 도심포교 전략 세워

조계종 포교원 25일 ‘종교편향과 도심포교에 대한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이 개신교의 ‘성시화(聖市化) 운동’에 대응해 새로운 도심포교 전략을 세운다.

포교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손안식)와 공동주최로 ‘종교편향과 도심포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성시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편향 행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도심포교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연찬회는 △정병 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이 ‘성시화 운동과 도심 전도전략’을 주제 발표하고 정웅기 사무처장(맑은세상), 서재영 선임연구원(조계종 교육원), 이찬수 원장(종교문화연구원)이 토론한다. △김웅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는 ‘불교 도심포교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 발표하고 남전 스님(용주사 기획국장), 김영일 포교차장(조계종 포교원)이 토론 발표한다.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개신교계 지역자치단체와 각급 기관장 등 공직자의 성시화 발언과 종교편향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의외로 불교계는 성시화 운동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시화 운동의 실상과 내막을 알아보고 도심포교에 대한 집중 조명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 갈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포교원이 토론 발표한다.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개신교계 지역자치단체와 각급 기관장 등 공직자의 성시화 발언과 종교편향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의외로 불교계는 성시화 운동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시화 운동의 실상과 내막을 알아보고 도심포교에 대한 집중 조명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 갈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희망드림 꿈드림’ 캠페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본지와 지구촌공생회가 공동 진행하는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드림 꿈드림’ 캠페인 후원 명단입니다. 6월 19일 현재 성금 1442만 500원이 모금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5월 30일까지 후원자 명단
- 3월 19일 김장수 불자님 100만원 / 4월 3일 ‘보이는 내친구’ 8만원 / 4월 15일 이어진, 유보미 불자님 10만원 / 한익수 불자님 10만원 / 4월 23일 박은정 불자님 50만원 / 5월 2일 유정용 불자님 50만원 / 5월 4일 신정희 불자님 2만원 / 장순남 불자님 1만원 / 5월 5일 이복임 불자님 1만원 / 5월 7일 김종하 불자님 10만원 / 김태운 불자님 100만원 / 5월 11일 모미숙 불자님 1만원 / 전영임 불자님 2만원 / 김종승 불자님 12만원 / 5월 12일 최순애 불자님 10만원 / 이은목 불자님 5만원 / 하혜지 불자님 1만원 / 하승민 불자님 1만원 / 강계남 불자님 2만원 / 5월 13일 정미숙 불자님 10만원 / 박준호 불자님 1만원 / 이용현 불자님 3만원 / 생명요가문화원 1만원 / 5월 14일 정종명 불자님 1만원 / 이달숙 불자님 50만원 / 5월 15일 손금사 불자님 30만원 / 박경임 불자님 1만원 / 5월 18일 대동세무고일동 6만원 / 양혜순 불자님 10만원

- 자님 1만원 / 5월 29일 조윤정 불자님 10만원 / 박상희 불자님 3만원 / 이연우 불자님 1만원 / 5월 30일 김희옥 불자님 1만원
- 이밖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워터인 광주 ‘나눔의 집’에서 200만원, 화성 신홍사에서 60만원, 금산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모금액 45만원, 낙산사 주지 정병 스님 10만원, 한성포교원 법승 스님 20만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외 익명의 후원금 310만원이 담도했습니다.

-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집)이 6월 22일 인터넷 신문 ‘불교저널 (THE BUDDHISM JOURNAL)’을 창간했다.
- 서현숙 편집장은 “불교저널은 일분강점기 이래 한국불교의 등불이 된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계승한다. 올바른 종교관의 확립과 사부대중의 화합, 선종의 현대적 진작을 통해 21세기 한국불교를 선양함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www.buddhismjournal.com

‘불교저널’ 창간 ‘비구니스님의 수행’ 전국비구니회 24일 포럼

선학원 인터넷신문 오픈

전국비구니회 24일 포럼

비구니스님의 수행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포럼이 열린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제2차 한국비구니수행전통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선제사찰음식연구원 선재 스님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16인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담을 중심으로 사찰음식, 사회복지, 꽃꽂이 예술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02)3411-8103

www.buddhismjournal.com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1370년의 시공을 넘어 우리곁에 다가 오다!

www.mireuksa.org

# 익산 미륵사지 출토 부처님 사리 친견법회 및 윤달 삼사순례

2009. 6월 27일(토) ▶ 7월 26일(일) 한 달간

- 장소: 전북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15분)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말사(전북사암승가회)
- 문의: 금산사 063) 548-4441~2, 전북불교회관 063) 251-4942

【윤달 삼사순례도】

익산 미륵사지 출토 부처님 사리(12과)

【미륵사지 부처님 사리장엄기 중에서】 가만히 생각하건대, 法王(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柢)에 따라 감응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를 남겨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니) 미침내 오색으로 빛나는 사리를 7번 요점(요점은) 돌면서 경의를 표함하면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할 것이다. ... (화략)